



※ 이하 모든 사진의 출처는 '설국열차 홈페이지'(snowpiercer2013.interest.me)

우리들의 <설국열차>



글. 양려원
변호사(법무법인 인터로)

“당신은 도대체 심각한 게 없어? 내가 보이기나 해?”

아이들과 씨름하며 보내는 아내의 여름방학 스트레스가 극에 달한 모양이다. 이럴 땐 슬그머니 쓰레기를 챙겨 들고 나가거나, 아이들을 데리고 산책을 다녀오는 것이 좋다. 아니 모처럼 불타는

금요일이니 자동차 극장이나 가보자 할까? 훗! 아내가 낚였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 자동차 극장에서 영화를 보면 어떤 느낌일까? 사실 우리 부부는 자동차 극장이란 델 처음 가 본다. 마침 개봉한지 얼마 안 된 영화가 상영 중이란다. 게다가 비도 그쳤다. 쾌재를 올리며 극장에 갔다. 법률가가 본 영화 이야기 세 번째는 이 영화 <설국열차>다!

아직 영화 시작 전인데 차들이 많이 들어찼다. 우린 맨 앞 가운데 자리다. 라디오 주파수를 맞춰 놓고 뒷자리의 아이들과 치킨에 콜라를 마시며 영화를 기다렸다. 이때만 해도 자동차 극장의 맨 앞자리가 초래할 불운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드디어 영화가 시작되었다. 386 아니 이제 486(40대이고, 80년대 대학을 다녔고, 60년대에 태어난) 세대인 아내와 나의 추억을 불러일으킬 만한 <닥터 지바고> 같은 영화를 기대했다. 아니면 적어도 눈부신 설원이 펼쳐지는 아름다운 화면은 나오겠지? 이름만 <설국열차>는 아닐 테니까!

기대와 달리 영화는 칙칙한 어둠 속의 남루한 사람들에게서 시작한다. 아이를 빼앗긴 한 남자가 질서를 어겼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는다. 기차 밖으로 손을 내놓게 하여 푹푹 언 팔을 자르는 형벌이다. 그리고 수상의 연설이 이어진다.

“신발을 머리에 놓지는 않는다. 그렇

게 하면 질서를 어기는 것이다. 질서를 어기면 처벌을 받는다. 꼬리 칸은 머리 칸이 될 수 없다. 각자의 자리에서 질서를 지켜라!”

대충 이런 내용이다.

꼬리 칸이라... 계급과 시대의 모순을 이야기하며 대학 시절을 보낸 우리 부부에게 익숙한 코드가 아닌가? 생활에 지친 아내를 위해서는 잘못 골랐는지는 몰라도...

질서! 법이 참 좋아하는 말이다. 법은 질서유지를 위해 태어났다. 청동기 시대 국가가 형성되고 법은 바로 질서유지의 목적을 위해 권력자들에 의해 만들어졌다. 사람들은 권력의 상징인 법 앞에 복종하며 삶을 영위했다. 시간이 흐르고 질서가 사람들을 피폐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었다. 그럴 때 사람들은 법의 변화를 요구했고 이를 잘 알아차린 사람은 새로운 지도자가 되어 오래토록 존경받았다. 오늘날 우리 헌법에도 질서유지는 헌법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사유로 규정되어있다. 그러니 질서를 지키라는 수상의 말은 잘못이 없다.

문제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평등에 있다. 이는 질서유지보다 중요한 법의 이념이다. 지금은 고대나 중세 봉건 사회나 절대왕정의 시기가 아니다. 우리는 근대 시민혁명을 거친 법이념의 시대를 살고 있다. 우리 시대의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법의 이념은 천부인



권이다.

‘인간은 나면서부터 존엄하고 인간의 존엄을 누구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오늘날의 인류는 태형이 행해지는 나라에 대해 야만적이라 말한다. 이런 상황에서 신체의 일부를 손상시키는 형벌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반하여 어떤 이유로도 인정하기 어렵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관한 권리를 사회의 질서유지를 이유로 제한할 수 있을까?

설령 제한하더라도 그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을 것이다. 어디에서건 아무런 이유도 알리지 않은 채 아이를 빼앗아 가고, 그에 저항한 이에게 신체형을 가하는 것은 인간 존엄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것이다. 영화 속의 인권 침해는 질서유지를 이유로 정당화되기 어렵다. 영화 속 상황을 고려해 본다. 인류 마지막 생존자를 태운 기차 안, 어쩌면 질서에 의해 인간성이 말살될 수 있는 극한적 상황을 감안하며 영화에 빠져든다. 인간의 존엄이 침해되고 평등





이 주어지지 않으면 사회는 쪼아터지기 마련이다.

‘그럼 그렇지. 그대로 있으면 인간이 아니지.’

꼬리 칸의 반란이 일어났다. 반란을 주도하는 사람은 커티스다. 자동차 극장에서 아들 녀석의 반란도 이때 시작되었다.

“아빠, 저는 영화가 안 보여요. 앞으로 가도 돼요?”

알고 보니 자동차 극장은 앞좌석을 위한 곳이었다. 더구나 우린 그 극장의 맨 앞자리였으니 뒷좌석의 아들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영화의 화면이 보이지 않았던 모양이다. 문제는 딸아이였다. 다섯 살 꼬마 아가씨는 열두 살 오빠가 엄마와 앉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다. 아내는 딸과 아들 모두를 안을 수 없었고, 운전석의 나는 아들 녀석을 안을 수 없었다. 딸아이가 막무가내로 울기 시작했

다. 답답한 차 안에서 보이지도 않고 관심도 없는 영화를 보는 엄마 아빠가 미웠던 모양이다. 아내가 딸을 데리고 밖으로 나갔다. 이내 아들과 난 두 다리 쪽 뻗고 영화에 집중하게 되었다.

꼬리 칸의 사람들은 기차의 앞쪽 칸으로 가고 있다. 어려움이 있고 앞쪽 칸 사람들과의 싸움에서 많은 이들이 죽음을 맞았다. 그래도 그들은 앞으로 나아간다.

평등! 저항! 혁명! 가슴이 뜨거워지는 말들이 떠올랐다. 386이 참 좋아하는 말이다. 나의 반쪽 386은 나가서 돌아오지 않는다. 아내의 의식이 나를 선진적인 것은 80년대 학번의 공통 문화를 향유했기 때문이라. 더러 아내의 말을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그가 가진 시대적 감수성에 내가 미치지 못함이다. 그러니 이런 장면을 함께 보면 참 좋으련만!

권력을 가진 자의 지배 수단에 불과하던 법은 시민혁명을 만나 민주주의 법으로 다시 태어났다. 저항은 숭고한 이념이자 법을 새롭게 하는 역사의 원동력이다. 다만 법이 저항을 권리로 인정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체제 유지적인 법과 체제 변화를 모색하는 저항권과의 모순 탓이라.

그래도 다수의 법학자들은 저항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그 요건을 이야기 한다. 정말 썩을 대로 썩어서 국민의 합의를 배반한 법질서에 대하여 법체계 내의 어떤 다른 수단으로 해결되

지 않을 때, 저항만이 유일한 수단이라면 저항권을 행사해도 좋다는 말이다. 그렇게 엄격하게 인정되는 저항권이 바퀴벌레를 주식으로 먹어야 하는 영화 속 피지배계급에게는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저항은 지배계급에 의해 터무니없이 억눌린 인간들에게 유일한 생존수단이다. 우리 헌법도 전문에서 3·1운동과 4·19 혁명을 언급하여 이러한 저항권과 정신을 간접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아내와 우리의 늦둥이 딸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는 가운데, 주인공 커티스는 앞쪽 칸을 향해 전진하고 있다. 앞쪽 칸은 환하다. 물고기와 화초, 화려하고 깨끗한 사람들, 아이들은 윌포드가 영웅이라는 내용의 세뇌교육을 받는다. 그리고 커티스 일행은 몇 년 전과 이번의 반란에서 꼬리 칸 다수를 무작위로 죽인 것은 기차 내 다른 사람들의 생존을 위한 ‘균형’ 때문인 것을 알게 된다.

균형이라는 말에 이렇게 소름끼치긴 처음이다. 사실 균형은 법률가들이 참 좋아하는 말이다. 대법원 앞의 정의의 여신 동상이 들고 있는 저울이 상징하는 것은 바로 이 균형일 것이다. 그것은 법관의 판단에서 중요한 척도가 된다. 그런 균형이 영화에서는 공존을 위한 전략이고 꼬리 칸에게 행해지는 비인간적인 처사의 합리적 이유가 된다. 불행히도 균형을 이유로 행하여진 학살은 비인간적이지만 수궁이 된다. 극한적·예외

적 상황의 설정이 그렇게 만든다. 비행기 사고로 추운 지방에서 살아남은 몇몇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하여 인육을 먹었다는 이야기와 다를 바 없는 상황이다. 이 영화에서도 커티스가 처음 꼬리 칸에 탑승한 후 살아남기 위하여 어린 아이들을 먹었다는 말을 하면서 그 때의 상황에 대해 괴로워하기도 한다.

아무리 상황이 절박해도 인간은 여전히 존엄하다. 생명권은 어떤 경우에도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이러한 법적 당위가 흔들리는 것은 이 영화의 설정에 국한된 일이 아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수많은 범죄들이 수시로 생명을 위협하고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정치는 사람들의 삶에 가까이 있지 않고, 정권을 잡기 위한 싸움에 끝없이 몰두한다. 이념과 실재는 괴리되어 사람들의 눈에 법은 공허해 보인다. 영화가 극한적 상황을 빌어 말하려는 것도 어쩌면 한국 사



아내의 대답은 짧고 냉랭하다. 분위기가 갑자기 묘해졌다. 함께 보러왔는데 의도와 달리 영화의 절반 이상을 보지 못해서일까?

이제 영화는 후반부다. 커티스가 기차의 중간쯤 왔을 때 ‘이만하면 많이 온 것 아닌가? 더 가지 않아도 자네는 영웅이네’하는 말을 듣는다. 어쩌면 어떤 노력에 대해 나름의 성과는 제 각각일 수 있다. 끝장을 보아야만이 미덕은 아니다. 법질서의 모순에 저항할 때도 더 큰 희생을 줄이기 위한 대타협은 차라리 용기인 경우가 많다. 그러나 여기에서 끝나면 가슴이 답답할 것은 분명하다.

그의 전진을 돕는 보안전문가 남궁민수가 환각제인 크로놀을 모은 것은 기차를 세우고 탈출하려는 의도임을 알게 된다. 크로놀은 폭약이 될 수도 있었다. 우리가 탐닉하는 것의 파괴성을 말하려는 것일까? 남궁민수는 크로놀로 앞 칸으로 가는 문이 아니라 기차 밖으로 나가는 문을 폭파시키고 기차에서 탈출하려고 하지만 커티스는 그의 의도에 동의하지 않은 채 전진한다.

커티스가 드디어 기차의 맨 앞 칸에서 월포드를 만난다. 월포드는 커티스에게 중대한 제안을 한다.

“이 기차를 맡아주게.”

월포드는 이제 늙었고 기차는 누군가가 이끌어야 한다며, 역경을 딛고 스스로의 힘으로 기차의 꼬리 칸에서 맨 앞



화가 직면한 이토록 안타까운 현실일지 모른다.

기차는 굴러가야 한다. 쇼는 계속되어야 한다. 누군가는 거기에 묻어간다. 행해지는 모순과 부조리에 저항할 생각도 별로 없다. 비정규직 친구를 위해 정규직을 버릴 사람은 없다. 전쟁을 서슴지 않는 북한에 대하여 ‘북한사람들의 인권이나 우리와의 통일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도 한다. 여전히 지역감정이라는 낡은 도구가 이용되어도 생존이 모든 것을 합리화시키고도 남는다. 기업이나 학교, 국가라는 기차는 그렇게 모순과 부조리를 안고 달려간다. 가정도 마찬가지다. 세울 생각은 전혀 할 수가 없다. 더러 내리고 싶긴 하다.

아내가 잠든 아이를 안고 돌아와 뒷좌석에 앉았다.

“밖에서 봤어?”

“응.”

칸까지 온 커티스야 말로 기차를 이끌 가장 적합한 인물이라고 한다. 제안은 달콤했고, 커티스는 흔들렸다. 기성세대가 된다는 것은 힘든 일일까? 아니면 당연한 일인가? 법은 어떤가? 민중들의 저항과 희생으로 만들어진 법이 그 첫 마음을 잃어버린 적은 없었나? 첫 마음을 잃어버린 법은 개정 혹은 다른 새 법의 제정으로 폐기되지 않던가? 4·19세대가 정치입문을 하고 기성세대가 된 것을 비판했던 386이 그대로 답습한 것은 이 영화에서 월포드의 제안에 주인공 커티스가 흔들리는 것과 유사하다. 혁명을 일으켜 기차의 맨 앞 칸을 차지한 그도 결국 월포드의 체제 안에서 안주할 것이 분명하다.

다행히 영화는 커티스가 유혹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엔진 부속으로 일하고 있는 실종된 아이들을 발견하고 저항의 첫 마음을 되찾는다. 그는 맹렬히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기차에서의 탈출을 시도하는 남궁민수에게 기회를 준다. 마침내 기차는 폭발로 인하여 눈 덮인 산에서 멈추어 선다. 짐승의 털옷을 입고 기차 밖으로 나온 소녀와 소년의 눈에 설산을 오르는 북극곰 한 마리가 보인다. 영화는 끝이 난다.

“우리가 설국열차와 뭐가 달라?”

자동차 극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던진 아내의 말이다. 아니 이걸 무슨 금성에

서 온 여자분의 도발적 언사이신가?

“나도 때로는 기차를 세우고 싶다고.”

이어지는 아내의 자조 섞인 말에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지만 무엇이 문제인지 모른 채 운전만 한다. 그렇지. 우리도 설국열차와 다를 바 없지. 내리면 죽을 듯 생각하면서 부조리와 문제점을 안은 채 살아가지. 그것이 서로를 위한 것이고 ‘쇼는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이 절체절명의 진리인 양 말이다. 그날 밤 우리는 늦도록 맥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아내는 일방적이고 가중된 가사 노동과 육아, 그리고 그 너머 소통과 감정적 유대의 부족을 이야기했다. 우리들의 설국열차였다.

세상 어려운 것 중 가장 어려운 일을 가까스로 이겨낸 심정으로 잠들었다.

